

공개입양가족의 입양 적응과 입양관련 프로그램 참여경험 연구*

-초등학생 자녀를 둔 입양모를 중심으로-

An Open Adoption Family's Experience of Adapting to Adoption and Participating in Adoption-related programs:
Focusing on Adoptive Mothers with Elementary School Children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이 선 형**
군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 수 임 춘 희***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
박 사 배 지 연

Dept. of Social Welfare, Hoseo University
Associate Prof. Lee, Sunhyung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Kunsan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Lim, Choon Hee

Dept. of Social Welfare, Daejeon University
Ph.D. Bae, Jiyeon

〈 목 차 〉

I. 서론	IV. 연구결과
II. 선행연구 고찰	V. 논의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 초 록 〉

본 연구는 공개 입양한 모를 대상으로 입양과정과 입양 후의 적응, 입양관련 프로그램에서의 참여경험을 살펴봄으로써 공개 입양한 가족이 입양에 적응하고 행복한 입양 가족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입양가족에게 유용한 입양관련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입양가족생활에 만족해하며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초등학생 입양자녀를 둔 여섯 명의 공개 입양모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로 공개입양모들은 입양 후 부모로서의 행복뿐만 아니라 내적 성장, 부부에 증가, 호의적인 사회적 시선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와 모로서의 양육 전담의 부담, 입양 사실 공개로 인한 자녀의 예상치 못한 반응 등의 어려움을 함께 경험하였다. 특히 초등학생을 둔 입양모로서 자녀의 사춘기에 대한 불안과 자신의 중년기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 학교환경에서 입양아에 대한 편견과 차별, 공공기관 복지담당자의 입양 인식과 지원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공개입양모들은 입양사실로 힘들어 하는 자녀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수용해주는 노력과 당당하게 입양가족임을 드러내고 어려움을 직면하는 태도와 배우자나 부모, 친자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대처해가고 있었다. 공개입양모들은 입양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입양관련 프로그램이나 지원 그리고 자발적인 자조모임에 참여하였는데 무엇보다 자조모임과 입양자녀의 또래모임에서의 참여경험이 크게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요결과들을 바탕으로 공개입양가족을 위한 복지 서비스 강화, 학교 교사와 학생, 복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입양 이해교육 및 입양반편견교육의 실시, 입양가족을 위해 실제적으로 유용한 프로그램의 제공, 자조모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주제어: 공개입양가족, 입양적응, 입양 프로그램 참여, 입양모

*본 연구는 2021 가정학분야 춘계공동학술대회 포스터 발표한 논문임.

**주저자: 이선형(yisunh@hoseo.edu), <https://orcid.org/0000-0001-7938-3996>

***교신저자: 임춘희(chlim@kunsan.ac.kr), <https://orcid.org/0000-0003-0020-7485>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information on adoptive families and obtain the basis data for adoption-related programs that are useful to adoptive families by examining their experiences in the adoption process, post-adoption adaptation, and adoption programs. For the stud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six mothers who publicly adopted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had expressed high satisfaction with adopted families and their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is research voluntarily. The main results exhibited parents' happiness post-adoption along with positive changes, such as internal growth, marital love growth, favorable response from others, and child's unexpected responses to adoption. However, open adoption mothers have coped with efforts to sympathize with and accept their children's feelings as they suffer from adoption, and with active support from their spouses, parents, and their own children. Open adoption mothers participated in various adoption-related programs, support, and voluntary self-help groups provided by adoption agencies or public organizations, and above all, their experience in self-help groups and peer groups of adopted children was found to be very useful. Based on these main results, we suggested strengthening welfare services for open adoption families, implementing education to better understand adoption, education for school teachers, students, and welfare staff, providing practical programs for adoptive families, and promoting self-help groups.

Key Words: Open adoption family, Adoption adaptation, Participation in adoption programs, Adoptive mother

I. 서론

입양가족은 현행법이 허락된 방식으로 가족을 구성한 보편적인 가족의 한 형태이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서는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입양은 부모가 입양자녀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 사랑과 보호로 아동의 양육과 성장을 도울 수 있으며, 입양자녀 또한 안정된 생활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도적 측면에서 입양은 입양부모와 보호대상아동에게 공적 제도와 법체계의 지원을 통해 가족을 형성하여 사회구성원을 육성하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점에서 입양은 입양과 관련된 부모와 자녀의 행복과 복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제도로서의 가족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입양은 아동의 복리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입양아 수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1년 1,770명이었던 국내 입양아 수는 2010년 1,462명, 2020년 260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보건복지부, 2001, 2010, 2020b). 이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출생아 수 감소와 보호대상아동 수의 감소,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 2021년 아동복지법 개정 등 사회적, 정책적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국내입양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도 입양환경의 대표적인 변화로 출산율 감소와 양육비훈모의 증가로 인한 입양대상 아동 감소, 예비입양부모들의 감소와 더불어 입양특례법 개정을 언급하였다(권지성·정정호·김진숙, 2018). 보호대상아동의 수적 감소는 입양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할 수 있는데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 아동들은 시

설 혹은 가정보호(입양, 가정위탁 등)를 통해 보호를 받는다. 2001년의 경우 시설을 통해 보호되는 아동 수가 4,774명이었던 것이 2020년 2,727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입양에 의한 가정 보호 아동 수도 2001년 1,848명에서 2020년 88명으로 급감하였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입양아동의 수적 감소의 이면에는 입양특례법 개정과 같은 정책적 변화와도 관련되어있음을 고려할 때 입양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입양관련 정책의 변화가 요구되며, 입양부모들의 상황과 입양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입양이나 입양가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점차 긍정적으로 확산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입양가족은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먼저, 입양아가 처음 만나는 사회인 어린이집이나 학교, 공기관 등에서 편견이나 차별을 경험하고 있어(권지성 외, 2016) 이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입양 가족에 대한 사후 서비스는 법적으로 1년에 한정되어 있으나 아동이 성장하면서 가족발달주기별로 나타내는 다양한 욕구를 감안한다면, 이들에 대한 사후서비스는 이후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16세까지의 월 15만원의 경제적 지원과 제한적인 심리·사회적인 지원에 한정되어있어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입양가족 실태 조사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 입양가족은 이들 대상 가족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전반적으로 높게 보고하고 있었다(장창수·배지연, 2016).

한편 입양가족의 경우, 영유아기에는 자녀나 친인척 등에게 ‘입양을 알리는 것이 비교적 수월할 수 있으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사춘기를 거치면서 입양사실을 어떻게 다룰 것

인가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게 된다. 인간발달 단계상 아동기에 는 사회·정서적 발달이 급격히 일어나며 아동후기부터 시작 되는 소위 사춘기인 청소년기에는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정체 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청소년기의 정체감 형성은 만족 스러운 성인발달의 전제조건으로, 공개입양을 한 부모가 어려 서부터 자녀에게 입양사실을 알렸어도 입양자녀가 학교에 다 니게 되고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이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고 민하며, 낯아준 부모에 대한 환상과 친생부모의 부재로 인한 정체감 형성의 위기를 겪는다(Harper, 1984).

입양가족의 발달과업을 다룬 연구에 따르면 이전 단계에서 비교적 단순하던 발달과업이 학령기가 되면 입양아의 입양의 미 알기, 상실에 대처하기, 입양과 관련된 낙인다루기, 입양에 대해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 유지하기 등으로(Brodzinsky, Smith & Brodzinsky, 1998) 다양화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입양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입양부모에게는 이들을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나 네트워크, 사회적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실제로 입양가족에게 자조모임이나 입양관련 행사, 캠프 등을 통한 정보교류와 정서적 지지, 공적 지원은 입양부 모와 자녀의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지성, 2004; 김향은, 2006; 변미희 외, 2015).

한국의 경우 보편적인 가족복지를 위해 2005년 이후 건강가 정기본계획이라는 정책의 틀 속에서 건강가정기본법과 가족관 련 법 제정,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가족대상 전달체계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입양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지 원은 대체로 아동 복리적 차원의 접근으로 제한되어왔으며, 건 강가정기본계획이라는 틀 속에서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측면이 있다(배지연·이선형, 2021). 입양가족은 일반적 가족 의 한 형태로서 건강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보편적인 욕구와 더 불어 가족형성의 상이함으로 인해 나타내게 되는 특수한 욕구 를 동시에 갖는다. 또한 입양가족들은 입양 방식의 차이(비밀/ 공개입양, 연장아 입양 여부, 장애아동 입양 여부 등)로 인해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지므로 입양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한 보다 섬세한 복지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입양가족이 갖는 특수성과 다양성 을 고려하면서 초등학교 입양자녀를 둔 공개입양가족으로서의 적응과정 특히 입양 전후의 변화와 어려움, 그리고 대처 경험 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입양가족으로서의 적응에 도움이 되었을 입양 관련 프로그램의 참여경험도 살펴봄으로써 입양 가족의 적응과 건강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입양가족을 위 한 다양한 지원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공개입양가족의 부모와 아동의 적응

1) 공개입양부모의 적응

입양가족 연구에서 '적응(adjustment)'은 문제상황에서 적극 적이고 능동적인 대처 과정(coping)을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적응이란 '개인과 환경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으 로 개인이 일생동안 생존과 성장, 생산적 기능들을 충족하기 위해 그의 환경과의 적합성을 성취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정의된다(Germain, 1979). 가족의 적응과 유사하게 '가족건강성'을 설명한 유영주(2004)는 가족건강성이란 '원활한 의사소통 과 적절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와 함께 대처하고 구성원을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가족체계를 안정적 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적응과 건강성은 유사한 개념으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정영금, 박정윤과 송혜립(2011)의 연구에서는 가족의 건강성 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가족건강성의 세 구성요소로 가족관계지표, 자원관 리지표, 외부관계/균형성을 언급하였는데, 그 중 가족관계 지 표의 구성요소로 친밀성, 적응성이 언급되고 있어 적응과 가족 의 건강성은 연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가장 중요하 듯이 입양가족에게도 부모의 적응과 역할은 입양 자녀의 적응 에 더욱 중요하다(박미정, 2013). 부모로부터 따뜻한 정서적 지원과 보호를 받은 자녀는 긍정적인 반응 행동을 보이는 반면 부모로부터 독재적이며 통제적인 양육을 받은 자녀는 부적응 적인 반응 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박미정, 2008). 입양은 입양부모와 자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데, 입양부모로의 전환은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수반한다. 자녀양 육 스트레스는 자녀를 돌보는 일과 관련된 신체적 요구, 부부 관계에서의 긴장, 정서적 부담, 사회적·재정적인 기회비용과 제한이 증가하면서 나타난다(전춘애·박성연, 1998; 안재진, 2008 '재인용'). 입양부모는 '갑작스런 부모됨의 부담(burden of instant parenthood)'을 떠안게 되면서, 새로운 부모역할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또한 입양부모는 아동의 기질이나 유전적 특성에 대해 예측할 수 없 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 불안과 불확실성을 경험할 수 있다(안재진, 2008).

그러나 양부모에게 있어 입양이 부정적 스트레스(distress) 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랜 기간 난임을 겪거나 자녀에 대 한 기대가 있었던 가정의 경우, 부모됨과 입양으로 인한 기쁨 은 긍정적 스트레스(eustress)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러한 긍정 적인 측면은 선행연구에서 입양가족에게 긍정적인 영향 및 생 활만족도를 높인다거나(권지성·안재진, 2005; 남연희·김의 남, 2006), 또 입양부모의 입양 후 느낌이 더 긍정적으로 변했

으며(안재진 외, 2010), 입양 이후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가 회복되는 계기가 된 것(현태욱, 2004)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입양부모의 적응과 관련하여, 초등학년기 부모를 중심으로 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지성 외(2016)에 의하면, 입양부모는 입양가족의 적응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후 또는 사춘기에 정서 및 자아발달, 또래관계, 학업성취의 면에서 문제행동이나 부적응 행동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입양부모 중에는 입양 후 자녀양육 스트레스, 입양자녀와의 세대 차이, 퇴직 또는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건강의 문제 등이 나타나면서,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가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지성(2004)은 공개입양가족들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다고 하였으며, 백경숙과 권미희(2001), Brodzinsky et al.(1998), 박미정(2009)은 입양아동이 입양적응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상호작용이며, 입양됨의 의미를 알아갈 수 있도록 양육환경 조성과 개방적 의사소통,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박미정, 2013). 안재진 외(2010)는 입양부모의 입양 후 느낌이 긍정적이고, 입양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넓으며, 입양부모 모임에 참여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입양과 관련된 의사소통이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아동이 성장하면서 입양과 관련된 질문이 증가하며 학력이 높은 입양부모가 이러한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입양부모의 적응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충분치 않으며 입양부모가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으나 경험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며 특히 입양자녀가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입양부모 특히 입양모의 적응에 초점을 둔 연구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공개입양아동의 적응

입양부모-자녀관계는 입양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는 입양아동이 불우한 입양 전 경험으로 받은 부정적 결과로부터 보호하며(Barcons, 2012), 입양가족의 강한 응집력 즉, 가족의 도움, 가족구성원 간의 편안하고 지지적 관계는 입양아동의 활동수준, 사회적 능력과 학업성취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McGuinness, Ryan & Robinson 2005; 최운선 외, 2019 '재인용'). 특히 초등학년기 아동의 경우 입양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초등학년 아동들은 공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편견이 있는 학교문화를 경험하고 되고, 또래 관계가 형성되게 되며, 가족에 대해 배우기 시작하고, 자신이 입양가족인 것을 알릴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된다. 이 시기에 부모-자녀 간의 관계가 건강하다면, 충분히 입양의 의미를 확립하는데 어려움을 덜 겪을

수 있다.

입양아동의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배운진 외(2016)의 연구에 의하면, 초등 아동기 부모의 양육경험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공개입양으로 인한 '입양 이슈 다루기'였다. 즉, 아동기에는 입양자녀의 구체적인 질문에 답하고, 상실과 애도를 다루며, 생부모찾기를 지원하는 과업을 수행하며, 청소년기에는 이러한 이슈들이 침묵 상태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는 또래관계와 의미있는 타인과의 관계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시기로 자기이해가 깊어지고 자아존중감과 자기개념을 형성하는 시기(Santrock, 2015)로 영유아기에는 비교적 자녀나 친인척 등에게 알리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으나 유치원이나 학교를 입학하고 사춘기를 거치면서 가족내에서는 입양사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대두된다고 하였다.

Brodzinsky et al.(1998)은 입양가족의 발달과업을 입양부모와 아동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입양아동의 경우 그 이전 단계에 비교적 단순하던 과업이 학령기에 자신의 입양의미 알기, 상실에 대처하기, 입양과 관련된 편견 다루기, 입양에 대해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 유지하기 등으로 다양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에 잘 대처할 필요가 있다(배운진 외, 2016). 학령기 시기의 입양아동은 더욱이 사회관계의 확대로 입양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 편견에 부딪히기도 하는 등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 시기에 보이는 아동의 혼란과 생물학적 부모에 대한 의문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아동의 입양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배운진 외, 2016)고 하였다.

입양아동발달에 관한 중단연구(최운선 외, 2019)에 의하면, 입양아동은 자신의 입양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주위 친구들에게 입양사실을 공개할수록 부모와 입양관련대화를 더 자주 나눌수록 입양사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최운선 외(2019)는 현재 공개입양이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부모와 자신이 포기된 상황에 대해 더욱 현실적이고 공감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며, 입양을 덜 거부적인 것으로 경험하고, 더 안정된 정체성을 발달시키며, 적응상의 문제가 더 적다는 주장(Baran & Pannor, 1993; Chapman et al., 1987)을 지지하면서 입양아동은 자신의 입양사실을 또래에게 공개한 입양아동 집단이 비밀로 한 집단보다 학교적응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입양아동의 입양사실에 대한 공개적인 태도는 학교생활에서 입양과 관련된 대화나 질문에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였다(최운선 외, 2019 '재인용').

한편, 입양가족의 적응은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입양에 대한 인식, 즉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와도 관련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입양과 입양가족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은 입양아동 당사자와 부모,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

다. 예를 들어, '정인이사건'과 관련한 소수의 극단적인 아동 학대사건은 예비입양가족과 일반인들에게 부정적 인식으로 낙인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입양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낙인은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저해할 뿐 아니라, 입양된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입양가족의 적응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신정훈, 2016). 안재진(2008)은 공개입양부모들의 경우에는 입양 사실을 밝힘(공개함)으로써 사회적 낙인이나 주위 사람들의 편견 등에 대처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고 하였으며 입양 부모 역시 아동을 양육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사회적 편견'을 꼽고 있다.

입양부모들은 입양전에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입양의 우려와 만류, 반대 등을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있으며(안재진, 2008), 입양한 이후에는 입양사실을 공개함으로써 겪는 어려움(예: 자녀가 입양사실로 주변에서 상처를 받을까 하는)이 있다. 그래서 아직도 공개입양가정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자녀의 입양에 대해 공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Berry, 1993), 공개입양과 입양에 대한 편견 불식과 반편견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이 향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2. 입양가족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과 관련 욕구

많은 입양가족들이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자조모임, 부모교육, 아동캠프, 입양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입양가족으로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아동 및 입양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자조모임은 유사한 인생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지지를 획득하게 되며, 집단 과정을 통하여 성공적인 문제해결 행동을 모방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입양부모의 자조모임 등의 참여 경험은 입양부모가 아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입양으로 인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입양부모와 아동에게 직·간접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재 자조모임은 인터넷을 통한 모임, 입양기관 단위로 형성된 지역별 자조모임, 한국입양홍보회를 통한 자조모임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친목모임과 함께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입양부모교육은 입양 전 의무교육(8시간)과 입양이후 비정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입양기관별 또는 입양가족 관련단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입양부모들은 입양이후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과 정보,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입양과 관련된 이슈(공개여부 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러나 입양후 부모교육은 입양기관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정규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입양아동캠프와 대규모행사는 입양기관, 입양홍보회 등을 통해 년 1-2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많은 부모와 아동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입양가족들 중 특별한 욕구가 있는 가족들은 입양상담소, 입양기관(단체), 가족상담

기관 등을 통해 개인심리상담, 집단상담, 미술 및 놀이치료, 기타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가족들은 이처럼 자조모임, 교육, 캠프와 문화행사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에게 정보제공, 교류와 소통의 장을 통한 만족감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입양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은 주로 입양가족 단체나 입양기관에서 자조모임이나 홍보를 통해 실시되어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A입양기관은 입양가족캠프 및 대동제를 1년에 1-2회 실시하고, 캠프안에 부모교육, 또래교육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한국입양홍보회의 경우에는 입양가족캠프나 부모교육프로그램,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입양관련 프로그램참여 경험 연구를 살펴보면, 공개입양가족의 자조모임이 정보 교류와 정서적 지지를 통해 입양부모와 자녀의 적응에 큰 도움이 되며(권지성·안재진, 2005; 김향은, 2006; 권지성, 2004; 변미희 외, 2015), 입양부모들은 자조모임을 통해 자신이 변화하고, 또래 중심의 아동 자조모임은 아이들의 동질감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부모들은 고민을 나누고, 정보를 교류하며, 입양자녀가 또래와 상호작용하면서 치유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다(권지성 외, 2018). 장창수·배지연(2016)의 조사에 의하면,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비율이 76.0% 정도로 높았으며, 만족도도 90% 이상으로 높았다. 입양부모와 아동을 위한 지원욕구에 대한 조사결과, 교육, 상담, 경제지원의 욕구보다도 '입양의 부정적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 등의 욕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입양부모의 입양후 서비스 경험은 지역별, 입양기관별로 편차가 존재하며, 입양부모교육이나 입양가족 캠프 등은 제공되는 횟수나 기간이 짧아서 지역별로 소규모 캠프 및 교육의 지속적인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권지성 외, 2016).

I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와 자료수집

초등학생 자녀를 둔 공개입양부모의 경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연구자 가운데 한 명이 알고 지내는 입양부모 모임을 통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두 명의 어머니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그 입양한 어머니들을 통하여 초등학생의 입양자녀가 있는 어머니를 계속해서 소개받는 형식으로 만나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모두 여섯 명의 연구참여자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연구를 위한 면접은 사전에 자발적인 연구참여와 녹취동의 그리고 언제든지 원하면 면접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 등 연구참여에 대한 사항들을 참여자들에게 설명한 후 참여동의서를 받았으며 면접과 녹음을 시작하였다. 자료수집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면접 당시 코로나 19의 상황이었으므로 방

〈표 1〉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참여자 사례	부모 관련 정보						입양자녀 관련 정보			
	연령대	거주 지역	학력	종교	본인 직업	직업 경력	성별/나이 (현재)	입양당시 나이	입양 당시 자녀 유무	특이사항
1	50대 중반	충남	대졸	기독교	주부	주부	아들 2명 /11세, 9세	2개월 /2개월	2명	첫째 ADHD, 틱
2	40대 중반	충남	대졸	기독교	주부	경력단절	딸 1명 /11세	2개월	없음	ADHD
3	40대 중반	대전	대졸	없음	주부	경력단절	딸 2명 /9세, 6세	4개월 /3개월	없음	없음
4	40대 후반	대전	대학원 졸업	기독교	프리랜서	경력단절	아들 2명 /9세, 7세, 딸 1명/4세	6개월 /8개월 /4개월	없음	없음
5	50대 초반	경기	대졸	기독교	프리랜서	경력단절	아들 1명 /12세	2개월	없음	없음
6	50대 초반	서울	대졸	없음	프리랜서	전직 시간제 교사	아들 1명 /12세	1개월	없음	ADHD

역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연구자의 연구실과 별도의 공간이 마련된 카페에서 진행하였다. 면접 시간은 1회당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참여자들에게는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참여자들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1~2회 면접을 하였다. 여섯 명의 참여자들의 거주 지역은 서울과 경기, 충남, 대전 지역에 분산되어 있어 연구자들이 직접 그 지역으로 가서 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2. 분석방법

연구참여자들의 공개입양 부모로서 입양 후의 경험과 입양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에 대하여 면접, 녹취하고 전사한 자료는 질적 연구의 기본적인 방법(Seidman, 2009)을 따라 연구참여자 개인별로 자료를 읽으면서 연구주제와 관련된 단어와 문장을 포함한 의미 단위를 추출하여 범주화하였다. 범주화의 영역은 개별 자료들을 읽으면서 사례별 내용과 사례간 공통적인 부분을 비교, 정리해서 구분하여 각각의 주제 영역으로 분류하고 다시 각 주제에 따른 범주로 나누었다. 그 결과 공개입양 부모의 입양 경험은 크게 입양 전 경험과 입양 후 경험, 현재 초등학생 자녀를 둔 입양가족으로서의 경험 그리고 입양 지원 프로그램 및 활동 참여경험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었으며, 21개의 주제와 53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IV. 연구결과

1. 공개입양 부모의 입양 경험

1) 입양 전 경험

(1) 입양 결정의 동기

① 불임, 유산,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의 실패

연구참여자들이 입양을 결정하게 된 동기는 친자녀의 유무 상황으로 구분되는데 이미 두 명의 친자녀가 있었던 경우(사례1)를 제외하고는 불임과 난임으로 인해 입양을 결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불임이라고 해도 시험관 수술로 임신한 경험을 한 참여자도 있었다(사례3). 불임으로 인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시도했던 참여자들은 그 과정에서 단순히 신체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우울이나 대인기피, 기억감퇴 등 많은 고통을 겪으며 아이 갖는 것을 포기하기도 하였다(사례4)가 다소 늦은 나이에 입양을 고려하게 된다.

저희 시대에서는 막내아들이기도 하니까 애기 없어도 된다. 너네끼리 편하게 살면 돼 그랬는데 정말 안생기는 거예요. 아이가 정말 갖고 싶으니까 병원도 많이 다녔고 시험관수술도 막 7, 8번 했고, 그 와중에 한번 이제 임신이 됐었는데. 임신하고 얼마 안 있다가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신랑한테 입양하자고 얘기를 했죠.(사례3)

② 친자녀 양육의 자신감

연구참여자들의 입양의 동기가 모두 불임으로 인한 것은 아니다. 연구참여자 중 한 사람은 자신의 친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된 후에 입양하였는데 그 경우는 자신의 아이들을 키워본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감과 아이들을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성인이 된 자녀들로 인해 양육의 부담이 없어진 빈 등지의 중년기에 접어든 것이 맞물려 입양을 하게 되었다.

어느 날 이는 사람과 통화하다보니 그 동생네가 입양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남편도 자기도 좋아하니까 반대는 안했어요. 우리 큰 아이들도 그때 대학 다녔는데 내 애들은 잘 키웠다 싶어서 더 잘 키울 자신 있다. 그리고 입양하면 형과 누나 도움을 받아서 공부도 피아노도 더 잘 키울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으로 입양을 생각하게 된 거죠.(사례1)

③ 입양자녀의 외로움 덜어주기 위한 둘째 입양

연구참여자들 가운데 절반은 한 명만 입양하였으나 나머지 절반은 두 명 혹은 세 명까지도 입양하였다. 두 명의 자녀를 모두 입양한 경우(사례1,3)는 모두 동성으로 입양하여 형제 또는 자매로 키우고 있었다. 그리고 둘째도 입양한 이유는 입양한 자녀가 외로울까봐 형제를 만들어 주기 위함이었다.

둘째는 첫째를 키우고 있었는데 첫째가 4살 때 났 즈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문득 이제 겁이 좀 나는 거예요. 시집 쪽은 형제도 많고 우리도 형제들이 있는데 우리 부부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첫째가 너무 외롭고 힘들 것 같은 생각이 그래서 둘째도 입양하게 되었어요.(사례3)

④ 딸을 위한 셋째 입양

연구참여자들은 한 명(사례5)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음에 딸 입양을 원했다. 그러나 딸을 입양하려면 오래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부분 바로 입양이 가능한 아들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아들을 두 명 입양하였어도 딸을 위하여 셋째까지 입양한 참여자도 있었다.

남자아이들은 입양이 많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성별은 따지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딱히 막 사실 그 심정적으로 딸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긴 있었는데 사실은 딸이 없고 오래 기다려야 했어요. 나이가 40대 초반이었으니까 이제 나이가 더 늦어지면 이제 엄마 나이가 늦어지면 이제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그냥 기쁜 마음에 바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두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적응이 좀 되니까 남편이 사실은 약간 딸도 있었

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슬슬 해서 셋째는 딸로 입양을(사례4)

(2) 입양 결정에 도움이 된 요인

① 아이와의 감동적인 첫 만남

연구참여자들이 입양 결정에 도움이 된 결정적 계기로 특히 아이와의 첫 만남에서 느낀 감동을 꼽았다. 참여자들은 아이와의 첫 대면과 접촉의 순간에 직감적으로 입양에 대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언급하면서 당시의 첫 만남을 감동의 기분으로 회상하였다.

저희 신랑이 보더니 아기를 처음 안고 A기관에서 아기손을 보는데 자기손으로 너무 꼭 잡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잊을 수가 없다는거예요. 손을 잡고 안 봤는데 자기의 첫 느낌이 자기한테는 너무 크게 와 닿아갔고 오 너무 감동스러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사례3)

② 가족(배우자, 부모)의 적극적 지지

입양은 부부 두 사람이 결정한다고 해도 부모를 포함한 가족내에서 중요한 가족 사건이며 결혼 후에도 부모의 영향이 많이 받고 유대가 긴밀한 한국의 가족 상황을 감안할 때 양가 부모의 태도나 입장이 중요하다. 참여자들은 배우자나 친자녀(16세 이상의 친생자가 있는 입양부모의 경우 반드시 친생자의 동의가 필요함), 그리고 부모와 시부모가 입양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지해준 것이 입양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밝혔다.

우리 가족이 모두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남편도 우리 딸도 아들도 아이들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입양 하는데 협조해줬죠. 자녀들이 성인이면 애들도 싸인을 해줘야 해요. 처음엔 난리였지만 편지를 써서 승낙을 받았어요.(사례1)

남편이 먼저 제의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얘기를 하였고 그 얘기를 친정에 전했는데 친정어머니는 3년전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하고계셨더라고요. 말씀은 안 하였고 마음속으로(사례6)

입양얘기를 사실은 맨 먼저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하신 거였더라고요.(사례5)

③ 가계계승이 아닌 육아의 기쁨인 입양의 의미

참여자들 대부분이 딸 입양을 위한 것은 아들보다는 딸 키우는 재미가 더 있다는 생각이었으며 더 이상 가계계승자로 아

들이 있어야 한다는 관념이 희박해지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외아들이던 남편의 뜻대로 아들 한 명을 입양한 참여자의 경우 핏줄을 이으려는 가계계승보다는 아들 가진 아빠로서 부자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싶다는 소박한 육아에 대한 욕구가 더 컸다.

남편은 아들을 원하고 저는 딸을 원했는데 딸은 1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하고 남편말로는 자기가 외아들이고 자기 핏줄을 잇고 싶어서가 아니고 아들과 목욕탕도 같이 가고 야구 축구도 같이 하고 싶어서 아들을 원했다고 그러더라고요.(사례6)

(3) 입양 결정을 둘러싼 갈등

① 입양에 대한 편견으로 주위의 만류

친자녀가 성장한 후에 아이를 입양하는 참여자의 경우 특히 가까운 주변에서 입양을 만류하였다.

우리 올케가 애들 다 키워놓고 왜 이제 편할 때인데 애를 입양해서 자기 신세를 볶냐고 그러면서 뭐라 했죠.(사례1)

② 배우자의 망설임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먼저 입양을 제안하였는데 남편이 입양을 먼저 제안한 참여자의 경우 막상 아이를 만나러 가면서는 망설이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③ 셋째 입양에 대한 부정적 반응

2명의 남자 아이를 입양한 후 셋째로 딸 입양을 한 참여자의 경우 주변 사람들은 특히 셋째 입양을 고려하는 참여자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그로 인해 참여자는 셋째 입양을 원하면서도 두려움으로 주저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주위 사람들은 사실상 입양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주위에서 반대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론적으로 보면 둘 키우는 게 합리적이죠. 여러 가지로 왜냐면 돈도 그렇고 제 육아능력도 그렇고 여러모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몇 번을 막 아닌가... 진짜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어와서 아 못하겠구나 괜히 이거 했다가 큰일 나겠다.(사례4)

(4) 입양의 준비 과정

① 입양자녀를 위한 태교

불임이었던 연구참여자들은 비록 임신과 출산과정을 거치지 않았어도 입양할 아이를 만나기 위한 마음 준비의 의미로 태교를 언급하였다. 아기를 기다리며 일기를 쓰기도 하고 금식기도

나 새벽기도를 하기도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가족에 올 자녀를 위한 준비를 하였다. 이는 당사자가 엄마가 될 준비를 하는 의미 있는 경험으로 분명 태교로 볼 수 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기를 기다리는 것도 다 태교라고 임신이라고 생각하고 태교를 하라고 계속 하루에 오늘은 이랬고 널 기다린다 막 이러면서 썼어요.(사례3)

② 입양특례법 개정(2012년) 이후 많아진 입양제출서류
입양은 2012년 입양특례법 시행부터 입양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입양을 위해 제출할 서류나 조사가 많아졌다. 2012년 이전과 이후에 입양을 신청했던 참여자들은 입양을 위한 그러한 절차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입양부모에게 과도한 자격 요구가 자칫 입양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솔직히 입양한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모르고 그런 두려움으로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기까지 참 쉽지 않은 과정인데 그걸 막 제도나 자격 심사서류 이런 걸로 너무 이렇게 묶고, 그렇지 묶어버리니까(사례1)

2012년 이후로 입양이 굉장히 강화돼서 입양 준비서류가 27개라고 하는데 영끌이예요. 영혼을 끌어 모아서 서류를 만들어야 해요. 근데 여기서 얼마나 더 강화시키냐고 아니 출산한 사람도 그렇게 하냐고 육아계획서 에세이 이런 거 막 다 써야 된대요. 출생신고도 안하고 죽어버리는 부모도 있는데 그런 거에는 아무런 그것도 없이 입양부모한테만 너무 하죠.(사례5)

2) 입양 후 변화

연구참여자들은 공개입양 후 경험에 대하여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언급하였는데 그러한 변화로는 크게 '부모로서의 행복과 내적인 성장', '더 단단해지고 친밀해진 부부', '호의적인 사회적 시선'으로 나눌 수 있다.

(1) 부모로서의 행복

① 육아로 인한 행복, 기쁨, 감사

연구참여자들이 입양 후 가장 긍정적인 경험으로 '부모로서의 행복'을 강조하였는데 특히 육아로 전에 맞보지 못한 행복감과 기쁨, 감사와 같은 감정들을 언급하였다.

뭘랄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고 이 힘든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은 뭐냐 그냥 존재만으로도 좋고 행복해요. 만약에 ○○가 없었으면 어땠을지 상상도 할 수 없어요.(사례2)

힘들긴 하지만 행복한 거?(사례3)

감사해요. 진짜 감사하죠. 진짜(사례5)

○○가 우리에게 와서 가족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행복하죠.(사례6)

② 부모 타이틀 획득에 대한 충족감

연구참여자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행복감은 불임으로 인해 갖기 힘들었던 '부모'라는 이름을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충족감과도 연관된다. 입양을 통해 엄마가 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부모가 된 것 못지않게 배우자인 남편 또한 아이의 부모 즉 아빠가 되었다는 것으로 인해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감을 갖게 된다.

남편이 예전에 아이가 없을 때는 친척 집에 간다든지 그러면 뭐랄까 좀 위축되고 그런게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얘기 있나 그런 말을 안하고 괜히 서로 눈치 보고 근데 지금은 ○○가 있으니깐 그런 것도 없어요고 다 해소되었어요.(사례2)

③ 신기하게 닮은 모습의 자녀가 주는 만족감

흥미롭게도 연구참여자들의 절반 가량은 입양한 자녀가 자신이나 배우자 혹은 부모님과 외모가 신기하게도 닮았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외모적으로 닮았다는 참여자 자신의 생각이나 주위의 평가가 친부모자녀같은 관계인 것 같은 안도감과 충족감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외모를 보는 건 아닌데 연락이 왔을 때 아니 아빠랑 너무 똑같다고 닮았다고? 닮았다는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집으로 갔는데 너무 똑같아요. 정말 판박인 거예요.(사례3)

(2) 내적인 성장

① 내적인 힘, 자기성장, 책임감, 너그러워짐

연구참여자들은 입양한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신만의 내면의 힘과 자신을 신뢰하게 되었으며 양육을 자기 성장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참여자들 중 일부는 입양 후 생긴 내적인 긍정적인 변화로 책임감이 커진 것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게 된 점을 꼽았다.

저는 종교는 없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저도 모르는 내면의 강함 그런게 생겼나 봐요.(사례3)

셋째를 입양하기 전만해도 항상 나는 좋은 엄마일까? 나는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는

데 셋째를 양육하면서 새로운 저의 모습도 보게 되고 제 자신을 신뢰하게 되었고 뭐랄까 제가 굉장히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이란 생각이 들어요.(사례4)

② 정서와 성격의 변화

친자녀가 없어서 입양한 참여자들은 입양 전 결혼 후 몇 년째 자녀가 없는 부부,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이라는 것으로 인해 특히 대인관계 기피나 우울증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를 겪었다. 입양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되고 성격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아이로 인해서 제가 더 밝아졌어요.(사례6)

아이가 없을 때는 남편하고도 점점 멀어지는 느낌, 같이 있어도 외로운 거? 그런게 있었어요. 예전에 입양하기 전에는 우울증, 대인기피증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게 참 힘들었는데 대인기피증 이런 게 해소되면서 도움을 청하는 게 조금 편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일도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변화가 된 거예요.(사례2)

③ 입양전문가가 된 것 같은 자부심

연구참여자들 가운데는 입양을 하고나서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입양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당당하게 입양가족의 목소리를 내면서 입양전문가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입양강사 교육을 받고 활동을 하는 경우(사례5)도 있었다.

저는 사회에 별 힘이 되지는 않지만 입양을 해서 사회에 보탬이 된다는 그런 자부심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전문가처럼 아는 것도 없는데 한 번 입을 열면 입양이야기를 막 하고 있어요. 저 자신도 모르게 그러니까 입양해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도 아닌데 입양전문가가 되어 있어요.(사례1)

(3) 더 단단해지고 친밀해진 가족애와 부부애, 성적 친밀감

① 가족간 대화와 단합의 증가, 단단해지는 가족

참여자들은 입양 후 특히 가족으로서 더 단단해지고 친밀해지는 경험을 했는데 주된 이유는 자녀로 인해 부부간 그리고 가족간의 대화가 많아지고 단합되는 점을 꼽았다.

애들 때문에 모이죠. 물놀이도 애들 때문에 같이 가죠. 그렇게 안 하면 큰 애들이 가겠어요? 큰 애들이 잘 데리고 가고 집안 행사나 집안 생일 때도 다같이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리고 대화거리도 많아졌어요. 안 그러면은 자기 방에 딱딱 들어가서 대화거리가 없잖아요(사례1)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그 ○○반에 가서 수업도 하고 그랬었어요.(사례5)

(6) 모(母)로서 양육 전담과 책임에 대한 부담

연구참여자들은 입양가족으로서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양육을 전담하는 엄마로서 양육 책임에 대한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다.

① 배운 교육대로 되지 않는 현실

참여자들은 입양 전부터 입양 후까지도 여러 차례에 걸쳐 부모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막상 육아의 현실에서 배운 교육과 달리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서 힘들어한다. 그러한 어려움은 배운대로 실천하기가 어려운 현실과 그로 인한 죄책감, 예상치 못한 자녀의 행동에 대한 대처, 입양에 관한 아이의 돌발질문 등과 같은 것이다.

아이들이 다르니까 똑같이 알려주고 하는데도 여러 방향을 저희도 염두에 두고 나름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데도 막상 다치면 당황하게 되죠. 저도 한 세 번 네 번 교육을 받아서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들었는데 아니 막상 아이가 입양에 대해 물었을 때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그런 게 있어요. 저의 자세도 부족한 거 같아요.(사례3)

② 경력단절

입양 전에 자신의 직업을 갖고 일을 했던 연구참여자들 가운데는 입양을 하면서 자신이 오랫동안 해오던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력단절을 경험하였다. 이는 여성이자 엄마로서 육아를 전담해야 하는 성별 분업이 입양과 함께 현저해지는 현상으로 참여자 당사자들은 자신의 일 중단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그러나 한 참여자는 입양 후 아이들을 보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변화로 스스로 자신의 일을 중단하였음을 밝혔다.

첫째 때 그만뒀어요. 첫째 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죠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처럼 살아야 하는데 너무 아쉬웠죠. 일을 그만 둔게 첫 직장이었고 거기서 일귀 놓은 것들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도 되게 많이 했고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만 두긴 했는데 일에 대한 아쉬움은 있죠.(사례3)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여상에서 7년 일했어요. 그때까지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보고 일 그만두고 애를 갖자 그래서... 입양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다시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를 키우면서 아이를 대하니까 너무

막 가슴 아픈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집안 사정이 좀 힘든 애들도 많고 예전엔 수업 태도가 안 좋은 그런 애들한테 지적하고 딱딱하게 대했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좀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니까 아이들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일 년 더 하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안 하겠다고 했어요.(사례6)

③ 모(母)로서 양육전담과 책임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부담 과중

연구참여자들이 입양 후에 엄마로서 양육을 책임지는 것은 단순히 책임감의 무게뿐만 아니라 신체적, 심리적인 부담이 과중되는 어려움을 수반한다.

첫째와 둘째가 거의 네 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제 그런 게 참 육아가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혼자서 독박육아 하니까 남편은 늦게 오니까 그래서 진짜 크게 싸우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남편도 직장생활하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힘들고 화나고 독박육아는 몸도 힘들지만 마음도 지치고 부담이 커요. 그래서 지금 일하는 엄마들을 보면 거의 한 명 입양했어요....하나가지는 그래도 그 이상은 버거우니까(사례4)

(7) 입양사실 공개와 정신·신체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자녀

① 입양사실 공개에 대한 자녀의 예상치 못한 반응

참여자들은 입양가족으로서의 어려움 가운데 특히 자녀의 입양사실 공개와 관련된 반응이 있었다. 입양사실을 자녀에게 직접 이야기해주었을 때 처음에 아무 반응이 없다가 나중에 느닷없이 되묻는다거나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자녀들마다 다른 반응을 보일 때 연구참여자들은 당황하였다.

받아들일 나이가 됐다 생각해서 얘기를 했는데 첫째가 여섯 살인가 그때 그랬는데 애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어 그랬어 엄마? 주변에 입양한 친구 집 아이는 입양한 사실을 알고는 반응이 너무 심해가지고 좀 밝은 아이였는데 충격이 되게 많았다고 들었는데 우리 아이는 반응이 없어서 애는 받아들였나? 그랬죠.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근데 한 일 년 지나고 어디인가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 얘기를 처음 꺼낸 거예요. 차 타고 오는데 뜬금없이 엄마 그래서 날 낳아준 엄마는 어딨어? 처음 물어보는데 늘 마음의 준비는 하고 아이 질문에 대한 시나리오도 있었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혹 들어오니까 오 뭐지? 많이 당황했어요. 그래도 얘기했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낳은 엄마가 키울 수 없는 상

황이었고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온거야. 그렇게 우리가 가족이 됐어. 이렇게 얘기해주었죠. 그런데 둘째는 또 다른 성향이어서 반응이 다른 거예요. 자기가 먼저 엄마 나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지? 엄마가 나 낳았는지?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죠. 아직 애가 그런 걸 받아들일 나이가 아닌데 나도 이제 좀 준비하는 과정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깐 근데 (입양한) 첫째가 '아니야 엄마 이 엄마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말했는데 애는 못 알아 들어요. 아직은 그럴 나이여서(사례3)

② 성장하면서 드러난 ADHD와 틱

연구참여자의 절반(사례1,2,6)은 입양 후 몇 년간 자녀를 키우다가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자녀에게서 ADHD나 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자녀들 또한 그러한 증상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안쓰러워한다.

○○는 틱이 굉장히 심해요. 지금까지도 언어가 전혀 안 돼서 5세부터 언어 치료를 다녔고 이제는 언어는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틱이 더 심해져요. 의사얘기로는 애는 유전성이 강하다 엄마 아빠 중에 한 명이 그게 있는 것 같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남자끼리니까 막 부딪히면 울다가 짜증내다가 싸우다가 막 격해지고 ADHD도 약간 있어서 어쩔 땐 감당하기 진짜 짜증 날 때도 있어요. 화가 날 때도 많은데 천불이 나지 그럴 때는 옛날 옛적 이야기까지 꺼내서 왜 나만 이렇게 태어났냐고 왜 나만 틱을 하냐고(사례1)

③ 정신·신체적 증상을 보이는 자녀의 양육에 대한 정보 부족

입양자녀가 심각한 장애는 아니지만 입양 후 나타난 증상에 대해 참여자들은 입양자녀 생모의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의 상황을 이해는 해도 입양 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정보나 지원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같은 입양 부모를 통해 알음알음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는 엄마가 입양했는데 그 딸은 서울시에서 입양 아동 심리치료 그런 걸 받았대요. 지원해주는 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 정보를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신청해서 받아보라고 그게 한 달에 20만 원 지원이 되요. 그래서 인제 일단은 검사를 다 받으러 갔죠. 갔더니 이제 많이 안 좋은 거예요. 일단은 ADHD 약간 있고요. 거의 경계선인데요. 우리 입양한 엄마들은 그런 정보도 잘 모르고 되게 문턱을 높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비용이 되게 쉼잖아요. 다들 얘기는 안 하지만

입양가족들이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거 같아요. 사실 입양할 땐 장애인 줄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돼서 그런 심리적인 문제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장애가 나타난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이의 생모는 어찌면 많이 불안하고 잘 챙겨먹지 못하고 외부에 알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를 우리 아이도 엄마 뱃속에서 다 받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안쓰럽죠. 이제 입양아들 중에 안전할 수 있는 아이가 얼마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이걸 정말 드러나지 않는 거잖아요.(사례6)

3) 현재 초등학생 자녀를 둔 입양가족으로서의 경험: 어려움

(1) 부모의 고연령으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

① 중년기 후반 신체적 노화와 활동적인 자녀양육의 애로 현재 4,50대에 접어든 연구참여자들은 체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중년기로 신체적 활동이 활발한 아동기 자녀를 키우는데 체력적인 부담을 토로하였다. 특히 자녀가 아들인 경우 한 시적으로 대학생들의 멘토링을 받았던 경험을 떠올리며 동성의 젊은 사람들이 아동기 자녀와 함께 하는 돌봄서비스를 원했다.

제가 중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막 놀아 주지를 못해요. 옛날에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이 잠깐 애들을 봐줬어요. 두 시간 정도 보드게임도 하고 같이 놀고 일주일에 한 번인가? 그래도 그 순간이라도 아이도 나도 스트레스 해소하고, 애도 그 때가 너무 좋았 나봐요. 멘토링이라고 하던가... 사실 입양한 엄마들이 중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갱년기고 애들하고 이렇게 놀아주고 소통할 수 있는 게 약간 조금은 힘들어요.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어도 그건 그냥 어린 아이들을 보는 거고 그거하고는 다른 차원이예요. 초등학생 남자애들은 신체적으로 놀아주는 게 있어야 해요. (사례1)

② 자녀의 다가올 사춘기에 대한 불안

초등학생으로 아직은 아동기에 있는 자녀들을 둔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곧 다가올 자녀의 사춘기에 대해 잠재적인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친자녀를 둔 부모도 마찬가지로 입양부모 입장에서 자녀의 정체성 고민이 입양에 대한 내적인 상처와 함께 증폭되지 않을까 내심 고민하고 있었다.

딸의 사춘기 저는 생각만 해도 솔직히 무서워요. 오늘 하루만 견디기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서 별 생각을 다 있어요. 대안학교라든가 3주에 한 번씩 온다는데 그런 것도 생각하고 그랬는데 아이

가 분리불안이 심해서 대안학교를 가면은 진짜 내가 좀 회피하는 거 같아서(사례2)

③ 자녀또래 입양가족 모임의 지속적인 교류 단절에 대한 불안

참여자들은 입양가족끼리 지속적으로 만나서 교류하는 것을 원했지만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입양가족끼리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아 만남을 통한 정보 교류가 단절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있었다.

그게 체계적으로 어떤 메뉴얼이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지금은 그냥 귀동냥한 걸로 얘기하면 듣는데 이제 중고등학교 입양부모를 만나기는 좀 힘들잖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모임을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중학교만 가도 모임을 잘 안 나오니까. 조언을 구하고 싶는데 답답한 면이 있어요.(사례5)

(2) 입양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인식 경험

① 자녀 주변 사람들의 입양에 대한 편견

참여자들은 입양 후 입양부모인 참여자와 입양가족 일원인 친자녀에 대한 호의적인 시선은 입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과거보다는 수용적으로 변했음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참여자들은 그러한 호의적 반응의 기저에는 입양가족으로 산다는 것이 힘든 일이며, 입양가족과 일반가족은 많이 다를 것이라는 차별적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 인식한다.

사람들이 입양했다고 하면 좋은 일 하시네요. 혹은 대단하시네요. 그런 말 하는데 그런 말이 싫죠.(사례1)

일반 사람들은 입양이나 입양가족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다 뭐 드라마나 뭐 이런 사건사고 이런 걸로 입양을 접하잖아요. 다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특히 방송이나 드라마 보면 다 그냥 막 가족을 막 왜곡하는게 많아요. 안 그런 입양가족이 잘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사례5)

② 학교 교사의 편견과 차별

연구참여자들은 특히 자녀의 일상 생활 환경인 학교나 학원과 같은 교육현장에서 교사나 친구들에 의해 편견어린 반응이나 차별을 받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분노감을 느끼기도 한다.

미술학원 학원 선생님 학원 선생님 애들한테도 ○○이가 나 입양이야 라는 이런 말을 이제는 좀 뭐랄까 그냥 말할 때가 있어요. 3학년 언니가 그랬대요 입양은 개나 고양이를 하는 게 입양이야 그말이 너무 속상

한 거예요. 애가 집에 와 가지고 평평 올면서 얘기를 했어요.(사례2)

2학년 됐을 때 제가 상담하기 전에 ○○한테 담임 선생님한테 입양한 거 말할까 말까 물어봤었거든요.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담임이 결국 입양한 걸 알게 되었는데. 선생님들끼리 얘기하니까. 그래서 되게 일이 많았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 교실에서 키웠던 애벌레가 죽었어요. 그런데 짓궂은 애들이 선생님 들어왔을 때 ○○가 옆에 있었는데 애벌레가 죽었어요. 그러면 담임은 ○○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데 바로 우리 아이를 혼내는 거죠. 이미 편견을 가지고 문제 아이처럼(사례6)

(3) 공공기관 복지 담당자의 입양 인식 부족 및 지원 미흡

① 입양가족에 대한 인식 부족

입양한 자녀가 장애를 갖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를 위한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었는데 현재 장애이동 입양양육보조금이나 의료비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담당 공무원들의 잦은 변경으로 입양가족의 장애 자녀 지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담당자들에게 오히려 매번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해야 하는 경험을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심리치료 지원이라고 해서 월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게 제도적으로 있는데 근데 그거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나와요. 그리고 이 복지팀도 입양가정 맡은 이 담당자들도 해마다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나보다 더 몰라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단니까. 아는게 없어요. 담당자를 만나면 제가 입양가족에 대해 설명해주고 도리어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물어본단니까요. 정말 화가 난단니까요? 알려줘야 돼 자기들이 문서상 다 해서 교육시켜놓고 넘어가야 되는데 바뀌면은 그냥 가나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보면 막 뒤지러 다니고 그런단니까요? 항상 그런 식이에요.(사례1)

② 입양가족 지원에 대한 파악 부족

입양모의 경우 사실상 그것은 입양가족이라서가 아니라 장애아 가족 지원이므로 실질적으로 입양가족을 위한 특별한 제도적 지원은 없다는 것으로 입양자녀의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한 공식적인 지원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일 년에 한 두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이런 종류로 접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정도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장애아가 있는 경우 더 지원받거나 서비스 받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모르죠

아주 중증이라면 그렇지 않으며 우리 같은 경우에 ADHD하고 틱 그런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뭐 입양가정의 장애 아이라고 해서 더 많이 지원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사례1)

4) 현재 초등학생 자녀를 둔 입양가족으로서의 경험: 어려움에 대한 대처

(1) 자녀의 슬픔과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수용 노력

① 자녀의 슬픔 공감과 수용

입양 사실의 공개가 장기적으로는 자녀에게 긍정적인 수 있으나 인지과 정서 발달이 급격히 발달하는 학동기 자녀들은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에 크게 무반응이나 낙담, 실망, 슬픔, 분노 등 다양한 감정을 드러내는데 이러한 자녀를 지켜보면서 입양모인 연구참여자들은 최선을 다해 자녀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수용해주었다.

우리 아이는 깊고 되게 다정다감해요. 남자아이답지 않게 그리고 애교도 많고,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약간 시크해졌어요. 약간 사춘기 들어온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아직 어려워. 언젠가 2학년 때였나 자기는 엄마가 자기 엄마였으면 좋겠다. 내 진짜 엄마였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옷 속에 들어와서 응애응애하면서 얘기 흉내를 많이 냈어요. 엄마 뱃속에서 자기가 태어나고 싶다고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런 얘기들을 다 받아줬어요.(사례6)

② 자녀의 신체적 증상의 수용과 적극적 치료

연구참여자들의 입양한 자녀의 ADHD나 틱은 대부분 초등학교 입학 전에 발생되었다. 그러한 신체적 어려움을 알게 되었을 때 부모입장에서는 바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실을 인정하고 또 같은 경험을 한 입양부모들을 알게 되면서 자녀의 어려움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위해 애쓰고 있었다.

○○가 여섯 살 때부터 그래서 약을 받고 처방을 받는데 부작용이 심해서 먹다 안먹다 반복하다 초등학교 갔을 때는 선생님이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해서 먹이다가... 처음엔 제가 인정을 안 했어요. 그냥 밝고 활발한 약간 지나치게 활발할 뿐이지 ADHD는 아니다. 이렇게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다 지금은 저번에 수원에 전문으로 잘 보는 병원이 있다고 해서 거기까지 다녔어요.(사례2)

(2) 당당하게 드러내고 헤쳐나가려는 모 자신의 노력

연구참여자들이 개인내적으로나 관계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다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그에 대해 무엇보다 입양부

모인 당사자 자신이 적극적으로 헤쳐나가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① 입양 사실의 공개와 입양 반편견 활동

연구참여자들은 공개입양에 대한 교육과 준비를 통해 입양 자녀나 주위에 입양사실을 당당히 밝혔으며 나아가 입양 반편견 강사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부모 자신이 입양 사실에 대해 당당히 공개하는 것은 자녀가 가질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과 입양가족이기에 받을 수 있는 편견을 오히려 불식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어려움 극복에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우리 ○○는 가족에 대해서 배운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미리 이야기 했죠 입양에 관해서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입양한 부모가 부끄럽게 생각하면 애들한테도 스며들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부끄러운게 아니다. 자꾸 새겨 놓아야 부모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제가 입양강사 활동도 했거든요.(사례5)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갔을 때 항상 반편견 입양교육을 애들이랑 같이 받았는데 그때는 그냥 듣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애가 지금 삼학년인데 이제 그거를 생각해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렇게 책 같은 걸 줘요 입양 책. 그거를 그렇게 많이 읽어줬는데 그때는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내가 입양가족이다 라는 그 책을 친구한테 뭐 두 권이면 하나를 주던가 막 이래요. 그동안 계속 입양에 대해 이야기해놓고 익숙하게 해놓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궁금할 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사례2)

② 자발적인 입양자녀 또래모임 결성

적극적인 참여자들 가운데는 자발적으로 자녀 또래의 입양가족 모임을 만들어 아이들과 부모들이 교류하고 있었는데 입양단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외에 종교단체의 신앙모임(사례4)이나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조모임(사례5)에서 상호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자조 모임이 가장 도움이 되었어요. 그건 부모님끼리 만든 거예요. 입양한 부모님들이 ○○○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고 그 카페를 통해서 1년에 두 번 캠프를 하고 체육회도 하고 이렇게 비용은 저희가 회비를 내죠. ○○이 다섯 살 때 제가 다섯 살 입양 애들 모임을 만들었어요. 또래 모임을 만들어서 ○○모임을

만들어서 또래 모임을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이들끼리 너무 좋아하더라고(사례5)

③ 시간제 일 구직

입양과 동시에 자신이 이전에 오랫동안 해오던 일을 그만둔 경력이 단절된 입양모들은 자녀가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어 개인적 시간이 생기면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시간제 부업의 형태로 일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가령 그림책 교육 전문가를 하면서 입양가족을 알리는 활동을 하거나(사례3) 혹은 입양자녀로 인해 시작된 일이었다.

제가 자전거를 못 댔는데 아들하고 타려고 배우게 되어서 취미로 라이딩을 하다가 강사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바이크스쿨 교육생 출신들이 모여있는 동호회같은 게 있거든요. 다 여자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라이딩 같은거 할 때 참여하고 그러는데 하면서 되게 많이 몸이 좋아졌거든요. 건강해지고 활력도 좀 생기고 그래서 우울증 같은 게 자전거를 타면서 없어지고 어쨌든 아들 덕분에 취미활동하면서 돈도 벌고(사례6)

(3) 배우자와 부모, 친자녀의 적극적 지원

① 배우자의 양육 참여와 부모의 정서적, 재정적 지원

자녀 양육 책임자로서 연구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다양한 노력을 하지만 배우자의 양육 참여나 부모의 재정적 지원 또한 도움이 되고 있었다.

남편이 굉장히 체계적인 사람이라 입양 관련된 애들 자료를 다 모아놨어요. 근데 아빠가 퇴근이 늦으니까 애들이 아빠하고 아무래도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도 아무리 늦게 와도 오면 청소를 다해 청소부터 하고 애들 씻기고 애들하고 몸놀이도 해주고 하니가 관계가 좋죠.(사례4)

첫째 아이 입양하고 나서 언젠가 (친정)아빠가 옆으로 매는 가방을 들고 오셨어요. 막 급하게 빨리 집에 가지는 거예요. 집에 오니까 현찰로 천 만원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일을 갑자기 그만뒀잖아요. 그 정도로 친정 부모님은 너무 기쁘신 마음에 그렇게 해 주신거예요. 둘째때는 쓰던 차가 있었는데 새차로 바꿔주시고 애기 오는데 어떻게 그 차를 타냐고 하면서 바꿔주시고 너무 감사하죠.(사례3)

② 친자녀의 협조

성인의 친자녀가 있으면서 두 명의 남자 아이를 입양한 참여자의 경우 성인이 된 친자녀들이 입양한 어린 동생들과 놀아

주고 돌봐주어(사례1) 전적으로 혼자서 양육을 담당하는 다른 참여자들에 비해 양육 부담을 다소 적게 느끼고 있었다.

(4) 적극적으로 환경의 변화 도모

① 입양자녀에게 비차별적인 학교로의 전학

초등학생 자녀에게 담임교사는 학교생활의 적응과 만족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그런데 연구참여자 중에는 자녀가 입양아에 대한 편견이 심한 담임교사를 만나 힘들어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참여자는 자녀의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입양에 대한 차별적인 분위기가 없는 환경으로 이사와 전학을 감행하였다.

이쪽으로 이 학년 가을에 이사왔어요. 이사 온 이유는 ○○가 자기 죽을 거 같다고 전학 시켜달라고 학교에서 2학년 담임이랑 너무 안 맞았어요. 담임이 혹시 담임이 1학년 담임한테 애 입양한 걸 들은 거 같아요. 되게 편견이 심해서 2학년 담임선생님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집을 팔고 여기로 이사 왔어요. 사실 집값 손해도 봤죠. 하지만 이 학교와서는 많이 좋아져서 그걸로 만족해요. 이 학교는 괜찮아요. 일단은 혁신학교예요. 담임하고도 너무 좋고 지금은 담임하고 통화하면 문제없다고 하세요.(사례6)

5) 공개입양 부모의 입양가족 대상 프로그램 및 활동 참여 경험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인 공개입양 부모의 입양가족 대상 프로그램 및 활동 참여 경험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크게 입양기관이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입양기관 이외의 공공기관에서의 프로그램 그리고 사적인 모임에서의 경험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1) 입양기관 지원 프로그램

① 주선훈준 자조모임에서의 유대감 형성과 정서적, 정보적 교류

연구 참여자들은 처음에는 입양기관에서 주선훈준 자조모임에 참여했으나 이후에는 입양가족이라는 동질감으로 자발적으로 모이게 되면서 지원을 받아 부모교육이나 부모상담을 받기도 하고(사례4), 자조모임에서 이루어진 캠프 모임에서 유대감을 더욱 다지고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였다(사례5).

○○○○에서 자조 모임에서 캠프를 갔을 때 제일 고마웠던 건 캠프를 가면 경험한 엄마들이 얘기해주는 데 그게 공부가 됐어요. 아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대처하라고 사례를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밤에 애들 재우고 아빠들

끼리도 얘기하고 뭐 불안하거나 당황하거나 슬퍼하는 표정 보이지 마라 기쁘게 얘기해주고 어 나중에 혼자 있을 때 거울보고 연습하고 말하래요. 입양 말하기.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죠.(사례5)

② 배우자나 자녀양육에 도움이 된, 그러나 아쉬움도 있었던 입양부모교육

입양단체에서 입양전에 제공한 예비입양부모교육을 비롯하여 입양 후 부모교육에도 참여했던 연구참여자들은 특히 배우자인 남편과 함께 교육을 받으면서 남편이 입양에 대해 불안감을 줄이고 안도감을 느낀 것이나 자녀양육에 도움이 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모교육의 내용이 다소 막연했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 남편이 입양교육 갈 때까지만 해도 입양에 대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딱 갔는데 남자들이 같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안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불안한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거기 여덟 시간 중에 어떤 아빠들은 좀 아이를 키운 세네 살이나 뭐 5살 그 애를 같이 데리고 와서 자기가 이렇게 키우고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걸 보면서 되게 안도감을 느꼈어요. 거기서 남편이 좀 안심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사례2)

입양전에 교육을 ○○에서 주로 많이 받고 도움이 좀 됐는데 좀 아쉬운 거는 실제적인 이런 입양 가족 얘기를 좀 들었어야 되는데 저희는 입양 전이었잖아요. 저희는 키워보지도 않고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그냥 형식적인 얘기여서 그냥 좀 막연한거죠. 아이들마다 또 성격이 다르잖아요. 입양가정이라도 다양하니까 다양한 아이들이나 가족의 경험을 들었으면 했는데 그렇지 않았고 그러면 저희 기억엔 단순한 거였던 것 같아요.(사례3)

③ 본인과 자녀에게 유용했으나 지속성과 확장이 필요한 입양관련 행사

연구참여자들은 입양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부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그러한 행사들이 본인이나 아이들에게 매우 좋았던 경험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행사들은 일회성이거나 단기적인 것이어서 보다 지속적이거나 입양가족을 위한 멘토와의 연결 같은 보다 심화되고 확장된 프로그램으로 연결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언제 무슨 행사였는데 잘 생각은 안나는데 애들이 했던거 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부모들하고 같이 짝을

맺어서 손잡고 그때 뭐죠 애기 뱃속에 넣어서 다시 꼬집어내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우리 배에 넣고 그렇죠.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거야. 애들이 다시 우리 뱃속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모양으로 옷을 이렇게 감싸고 그래서 태어났다 하나 둘 셋 하면 딱 넣고 끈으로 엮어서 땡기면 우리가 다시 안고 이제 그거 참 좋더라구. 우리도 좋고 아이들도 좋고 아주 감정이 또 다르더라고요. 아이들끼리 따로 모아서 아이들끼리 교육도 시켜주고 뭐랄까 또 애들이 입양 홍보대사라도 교육시켜서 또 무슨 증도 주고 여러 가지 많아요.(사례1)

(2) 입양기관 외 공공 기관의 지원

① 도움이 되지만 미흡한 정부의 입양아동 양육 수당
현재 입양아동의 양육수당은 16세가 될 때까지 월 1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일부 연구참여자는 고등학생 연령까지 수당지급을 원하였다.

제일 좀 도움이 되었던 거는 15만원 그것도 16세까지만 나와서 지금 18세로 올려달라고 해서 시의원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왜 16세인지 그냥 법적으로 16세 딱 규정이 돼 있더라고(사례5)

② 일회성 행사가 아닌 입양가족 대상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에 대한 희망

연구참여자들 가운데는 지역 소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한 입양가족을 위한 숲체험 행사에 참여한 사람도 있었는데 일회에 그쳤지만 좋았던 경험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일회성 행사보다는 입양가족을 대상으로 한 심리나 정서 지원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을 소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저희가 작년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우연히 알게 되서 거기서 입양가족들 숲체험 프로그램을 해주셨어요. 좋았죠. 근데 그냥 뭐 특별히 우리가 일회성이어서 그냥 한 한두 번 정도 아빠와 이렇게 하는 정도지 우리 입양가족의 특수성을 좀 이해하면서 해주는 데가 많이 없더라고요.(사례3)

행사지원보다 심리지원 같은거 있으면 좋을거 같아요. 아이의 불안감을 해소해줄 수 있는 심리적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러면 엄마가 해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전문가가 그래도 다루주는 거죠. 그 마음의 어떤 상처가 있다면 오로지 입양아동들의 심리지원이나 정서 안정 이런 거를 위한 어떤 부서 같은 게 생기면 뭐 장애지원센터 이런 것처럼 입양인 지원센터 아주 작은 부서지만 그런 게 있으면 뭐가 됐든 나라에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사례5)

③ 유연히 참여하게 된 한시적 교육 및 치료에 대한 고마움과 아쉬움

연구참여자 중에는 유연한 기회에 입양가족에 관심있는 교수가 제공하는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데 그러한 경험이 고맙긴 하지만 계속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어떤 교수님이 논문을 쓴다고 치료하는 걸 지원을 해주시면서 그 치료의 성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쓰시고 싶다고 의뢰가 왔대요. 그래서 저랑 연결을 해주셨어요. ○○가 그 교수님의 지원금을 받아갖고 ○○가 치료 받으면서 저희 남편이랑 저 부모 교육도 같이 받았어요. 정말 좋았고 감사했죠. 그렇지만 그때뿐이었죠.(사례6)

(3) 자발적인 사적인 자조모임

① 자녀 또래 자조모임에서의 유대감과 정보교류의 도움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이 자녀와 연령이 같은 또래의 입양아와 부모의 모임에 현재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모임 참여 경험은 자녀의 나이가 같고 입양이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자녀나 부모 모두 동질감을 느끼며 유용한 정보를 받는다는 점에서 유의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같은 또래들의 입양아 만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희도 ○○띠모임이 있어 ○○에 있는 ○○띠 세 명이랑 모두 네 명이 분기별로 만났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는 ○○띠 모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는 아이가 입양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제 자꾸 물어봐요 애는 입양했어? 이렇게 물어보다가 그 ○○띠 모임 전체 애들이 뭐랄까 자기만 입양한 게 아닌 걸 그 것을 느끼니까 그런 걸 좀 좋아해요. 친구들이 다 우리와 같은 가정이다. 그런 설명을 해줬을 때 ○○가 되게 좀 많이 안심? 받아들이다라구요. 왜 그러냐면 학교 안에서는 입양한 친구가 없잖아요.(사례2)

② 교회 모임에서의 정서적 지지와 필요시 돌봄에 대한 만족

신앙(기독교)이 있는 연구참여자들 가운데는 교회 모임에서 많은 정서적 지지와 관심을 받고 필요시에는 같은 모임의 성원에게 자녀를 맡기는 등 양육과 관련된 지원을 받았다.

저는 교회에서 언니들이나 지지해주는 자원이 많아요. 교회 자조모임도 두 군데나 되는데 친정엄마나 시댁은 마음으로 지지해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아이키우면서 아이를 급하게 잠깐 맡겨야 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아요.(사례4)

IV. 논의 및 제언

1. 논의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참여자인 입양모들의 입양 전 경험과 관련하여 불임으로 인한 무자녀 입양의 경우 대부분 딸의 입양을 원했으며 세 명의 자녀를 입양한 참여자의 경우 딸을 원해서 셋째를 입양한 결과로 보았을 때 입양의 의미가 가계계승의 의미보다는 육아의 즐거움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내입양에서 여아입양이 남아의 두 배 정도로 더 많은 현실과도 일치한다. 연구참여자들의 입양 결정에 도움이 된 요인 중 흥미로운 것은 아이와의 감동적인 첫 만남으로 아이와 손을 잡거나 눈을 마주치면서 느낀 감동으로 직감적으로 입양을 결심하였는데 아이와의 첫 만남을 운명으로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이 입양 후에 부모로서 느끼는 행복 가운데 입양자녀가 자신이나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부모와 신기하게 닮아서 만족스러웠다는 점은 실제로 입양자녀와 부모의 외모가 유사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참여자들이 가족으로서의 동질감과 유대감을 형성하고픈 소망의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부여는 입양 후 부모로서의 행복감을 갖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 된다.

특히 입양 전 입양모들은 입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식이나 새벽기도, 아이를 원하는 일기쓰기와 같은 자신들의 간절한 행위를 태교로 언급하였는데, 이는 입양이 신체적 출산이 아니어도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자녀를 기다리는 출산준비라 할 수 있다. 입양한 자녀를 흔히 가슴으로 낳는 아이라고 하듯이 입양은 또 다른 형태의 출산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입양부모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리는 심리적 임신기간을 거쳐 부모가 되는데(김기득·유정숙, 2010) 특히 불임이었던 입양모들은 더 간절하게 자녀를 기다리는 심리적 준비의 의미로서 태교를 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연구참여자들 가운데는 2012년 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자녀를 입양한 경우가 있었는데 입양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준비서류가 많아진 점에 대해 크게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2010년 1,462명이던 국내 입양아동수가 2013년 입양특례법 시행 직후 686명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2020년 현재 260명에 불과하다는 통계(보건복지부, 2020b)로 볼 때, 입양을 주저하게 만드는 까다롭고 번거로운 입양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입양부모의 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2019년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가 친모가 가장 많았으며 전체 아동학대 사건 3만 45건 중 입양가족에서 발생한 경우는 0.3%인 84건이었다는 통계(보건복지부, 2020a)를 볼 때 특히 일부의 입양가족에서의 학대 사건을 문제없이 잘 지내는 일반적인 입양가정에까지 확대해석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참여자인 입양모들이 입양 후 긍정적인 변화로 부모로서의 행복, 내적인 성장, 더 단단해지고 친밀해진 부부애, 양가부모의 환대, 호의적인 사회적 시선을 경험했다는 결과는 공개입양이 입양가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권지성·안재진, 2005), 공개입양부모의 생활만족도가 입양전보다 입양후에 더 높아졌으며(남연희·김의남, 2006), 입양부모의 입양후 느낌이 더 긍정적으로 변했으며(안재진 외, 2010), 또한 입양후 주변의 호의적 관심이 증가했으며(김향은, 2006), 입양이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 회복의 계기가 되었다(현태욱, 2004)는 입양 후의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본 연구 결과 특히 입양 후 입양모 자신이 자기성장과 책임감이 많아지고 입양전의 정서적인 문제(우울증, 대인기피증)가 해소되고 밝아졌으며 입양전문가가 된 것 같은 자부심을 갖게 되는 등의 내적 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입양 후의 긍정적인 영향은 주목할 만하다. 입양모 자신의 내적 성장은 부모로서의 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치며(Markova & Emelyanova, 2016). 성공적인 입양부모의 특징인 태도의 융통성과 인내 그리고 자기통제적인 양육태도(Nikolaeva & Yapararova, 2007)나 개인적 성숙의 요소인 관용, 친밀감 욕구의 발달, 타인의 욕구에 대한 민감성, 위험을 감수하는 능력(Rusalov, 2006)과도 연관된다. 그리고 입양모들의 내적 성장은 양육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밑거름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입양모들은 입양으로 인해 다양한 측면에서 부모로서 행복을 경험하면서 입양 전 부부중심의 생활에서 입양 후 자녀중심의 생활을 하였다. 그럼에도 부부간의 정서적, 성적 친밀감은 입양 후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더 많아지면서 오히려 부부애가 좋아졌다고 하였다. 이로 볼 때 부부관계의 강화는 입양 후 가족의 강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입양모들이 입양 후 겪는 어려움 가운데 양육 전담과 책임에 대한 부담이 컸는데 일반 가정에서도 육아에 관해서는 여성이 담당하는 식의 성별 분업 현상이 만연하지만 입양가정의 경우 남성이 부양자 역할을 하고 여성이 양육자 역할을 하는 성별 분업이 더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로 인해 입양 전 자신의 일을 하며 경력을 쌓았던 입양모들이 입양 후 일을 그만두며 경력이 단절되기도 하며 소위 독박육아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부담의 과중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성별 분업은 입양모 자신의 육아에 대한 의지와 열망에서 나온 역할수행일 수도 있으나 입양가족의 요구에 맞는 돌봄지원이나 배우자인 남편의 직장에서의 육아지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한편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곧 다가올 자녀의 사춘기에 대한 잠재적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입양가족의 자조모임도 자녀가 중학생이 되면서는 단절이 되는 상황이 많은 현실을 보면서 입양모들의 이러한 불안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학생 이후부터 자조모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불안을 느끼는 입양모들을 위해서는 청소년기

년기 입양자녀를 둔 자조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입양가족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아동기에 치중되어 있으며, 공개입양 부모들이 부모교육이나 상담에서도 가장 원하는 내용이 자녀양육 문제였음을(백경숙·변미희, 2001) 고려할 때, 특히 청소년기 자녀를 둔 입양가족에 대한 교육적,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

입양모의 양육문제로 인한 어려움 중 하나는 자녀에게 언제, 어떻게 입양사실을 공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참여자인 입양모들을 공개입양이라 하더라도 자녀에게 입양사실을 알렸을 때 무반응에서부터 수용하기 힘들어하거나, 처음에는 반응이 없다가 불현듯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입양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 등 부모로서 배운대로 대처하기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은 선행 연구에서도 나타났는데 입양부모들은 자녀에게 입양공개시기와 방법을 고민하며 자녀가 받을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우려하였으며(김향은, 2006), 공개입양부모들은 입양관련 대화를 나누기 적절한 자녀의 연령에 대해 자녀가 질문하면 언제든지 알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4세에서 7세 사이에 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류현, 2009). 또한 입양부모의 입양 후 느낌이 긍정적이고, 입양사실을 아는 사람들의 범위가 넓으며, 입양부모 모임에 참여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입양 관련 의사소통이 빈번하고, 학력이 높은 입양부모가 입양 관련 대화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재진 외, 2010). 그리고 입양아동은 주위 친구들에게 입양사실을 공개할수록, 부모와 입양관련 대화를 더 자주 나눌수록 입양사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운선 외, 2019). 그런데 본 연구의 입양모들은 공개입양에 대해 긍정적이고 자조모임도 활발히 하고 교육을 받은 대로 자녀에게 입양사실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녀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타났을 때 당황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입양자녀에게 입양사실 공개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실제적인 상황별 사례와 입양아동의 특성별 차이에 대한 교육적 정보가 입양부모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한편 입양자녀의 뒤늦은 장애 발견과 치료는 입양모의 양육 어려움 가운데 하나였는데 여섯 명 중 세 명의 참여자는 입양자녀들이 ADHD나 틱으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입양 후 장애가 드러난 것을 알게 된 장애아동 입양어머니들은 ‘안개 속을 헤매임, 삭히는 시간, 고통중의 감사, 세상에 당당히 맞섬,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온 아픈 아이, 아직 살아보지 않은 날에의 기대’로 요컨대 한 생명에 대한 사랑을 품고 긴 기습앓이의 시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김기득·유정숙, 2010).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입양 전에는 몰랐다가 입양 후 뒤늦게 입양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알게 되어 당황하고 처음엔 인정하지 않다가 뒤늦게 수용하게 되는 심리적 갈등을 경험했다. 그러나 부모 자신의 어려움보다도 자녀들이 ADHD나 틱으로 치료나 약을 복용해야하고 부작용을 겪는

과정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다. 입양아동에서 ADHD는 가장 빈도가 많이 나타난 문제(변미희 외, 2015)였으며, 입양한 자녀가 장애가 있을 때 입양부모로서는 입양과 장애라는 두 가지 편견을 함께 극복해야하는 일하기에 쉽지 않다(김가득·유정숙, 2010). ADHD나 틱은 공식적인 장애는 아니나 현실적으로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 등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그 치료는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어서 사실상 입양부모나 자녀 모두에게 힘든 일이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경우 자신의 어려움보다 입양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 안타까워했다. 선행연구(변미희 외, 2015)에서도 입양 후 아동의 문제를 알게 된 영아를 입양한 부모들 대부분이 사전에 그러한 문제를 전혀 몰랐거나 예측하지 못해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소아정신과를 가장 많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참여자들이 자녀의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해 받은 공적 지원은 매월 지급되는 15만원의 입양아동양육수당과 함께 만 18세 전까지 지원되는 월 20만원 이내의 심리치료비 정도로 도움이 되긴 하지만 장애치료와 회복까지 입양모의 양육부담은 지속된다. 본 연구에서 자녀가 ADHD나 틱장애를 가진 입양모들은 입양 후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아 모르고 있거나 증상이 있어도 부인하거나 무시하다가 특히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 후로 해서 문제가 나타나면서 치료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초등학교 입양자녀에 대한 발달진단검사를 실시하여 문제 수준에 따라 입양자녀를 일반집단, 경계선 집단, 고위험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에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변미희 외, 2015)이 더 커진다. 아울러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입양가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지원 업무의 파악 부실로 인해 연구참여자들이 매번 담당자들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을 고려할 때 입양가정의 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개선과 복지서비스 파악이 필요하다.

연구참여자들은 입양 후에도 계속해서 주위 사람들의 입양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입양부모들이 입양 결정 시 방해 요인으로 '사회적 편견에 대한 우려'를 가장 많이 하였으며 2011년 이전에 입양한 부모들보다 2012년도 이후에 입양한 부모들이 더 많이 인식했다는 결과(배운진 외, 2016)와 함께 여전히 입양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감소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입양자녀가 초등학교생인 경우 학교 담임 교사나 학원 선생님, 친구들에게 입양된 사실을 밝혔을 때 부정적인 반응과 편견, 나아가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초등학교 시기에는 교사나 또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 현장에서 교사나 학생들 대상으로 입양가족에 대한 반편견 이해교육의 실시가 특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는 초등학교 아이들의 사고와 행동, 태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미있는 타자로 초등학교 교사교육 속에는 다양한 가족의 하나로 입양가족, 입양아동에 대한 이해교육이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입양가족에 대해 '대단하다', '아이가 부모를 잘 만났다' 라고 해주는 식의 소위 '긍정적인 편견'(신정훈, 2016)은 연구참여자들은 당연한 양육을 차별적으로 미화하는 불편한 편견으로 인식하므로 그러한 차별적인 반응이 아니라 입양가족에 대한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지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

입양모인 연구참여자들이 현재 초등학교 자녀를 둔 입양가족으로서의 어려움에 대처하고 극복하는데 배우자와 부모, 친자녀의 지원과 입양단체나 종교모임, 자조모임의 노력도 컸지만 무엇보다 공개적으로 입양가족임을 드러내고 해쳐나가는 모 자신의 노력이 가장 컸으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당당하게 입양 사실을 공개할 뿐 아니라 나아가 입양반편견 강사로도 활약하며 입양자녀에 대해 편견을 가진 교사가 있는 학교에서 아이를 전학시키기도 하며 입양자녀에게 자신있게 자신이 '진짜 엄마'라는 자신감을 보였다.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며, 시간제라라도 자신의 일을 찾고 자발적으로 입양자녀 또래 모임을 결성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입양가족으로서의 어려움을 헤쳐나갔다. 입양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공개입양가족으로서 만족감이 높은 입양모들이었기에 다양한 측면에서 입양의 긍정적인 경험을 강조하였으며 입양부모로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초등학교를 둔 입양가족으로서의 어려움의 해결을 양육 담당자인 입양모 자신만의 개별적인 노력에만 맡기는 것은 입양가정의 건강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입양가정을 위한 지원 특히 양육을 전담하는 입양모의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공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입양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한 경험과 관련하여 연구참여자들은 입양기관이나 비공식적인 사적 모임에서 특히 자조모임에의 참여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공개입양가족의 자조모임이 정보 교류와 정서적 지지를 통해 입양부모와 자녀의 적응에 큰 도움이 되며 자조모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미 많은 연구(권지성, 2004; 권지성·안재진, 2005; 김향은, 2006; 변미희 외, 2015)에서도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입양기관에서 주선해준 자조모임이나 본인들이 스스로 만든 자녀 또래 입양가족 자조모임에서 많은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본 연구의 입양모들은 선행연구(권지성 외, 2018)에서 언급한 입양부모들이 자조모임을 통해 변화하였으며, 입양자녀와 같은 나이의 또래 중심의 자조모임이 동질감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부모들은 고민을 나누고 정보를 교류하며 입양자녀가 또래와 상호작용하면서 치유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다고 한 내용과 거의 동일하게 자조모임에서 받은 도움을 언급했다. 그러나 자조모임이 자녀가 초등학교 졸업 이후 잘 이루어지지 않아 정작 정보가

필요한 시기에 입양가족간의 교류가 단절되는 상황을 염려하고 있었으며 입양단체에서 주선한다 해도 자조모임을 할 만한 장소를 찾기 어려운 고충을 토로했는데 이 또한 선행 연구(권지성 외, 2018)에서도 자조모임을 위한 공간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므로 입양가족 자조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 입양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은 가족복지 서비스 기관에서 입양가족이 자조모임을 자생적으로 결성하고 지속해갈 수 있도록 여건과 공간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은 입양기관에서 제공하는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남편에게도 도움이 되었다고 느꼈으며 입양기관이 아닌 대학이나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제공한 한시적이거나 일회성인 부모교육이나 상담, 입양관련 행사라도 참여한 경험 자체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이지 않거나 형식적인 행사성이거나 입양가족에 대해 심층적인 이해가 많지 않은 강사들에 의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입양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참여한 경험 가운데 정부에서 나오는 입양아동양육수당(16세까지 월 15만원)과 장애아동 양육보조금(18세 전 장애 정도에 따라 별도 지급)과 같은 지원금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충분치 않으며 양육수당의 나이가 제한되어 있는 점이나 심리치료비 지원(18세까지 월 20만원 한도)과 관련하여 홍보부족이나 전문분야 의사나 심리치료 전문가 연결이 어려운 점 등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선행 연구에서도 입양부모들이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과 의료급여와 같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변미희 외, 2015)를 하였지만 양육수당의 확대나 학비지원, 입양가족을 이해하는 전문가 확보, 사후관리와 부모교육 프로그램 강화에 대한 욕구가 많았다. 그러므로 입양아동 양육수당이나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특히 심리치료비와 같은 공적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2. 제언

입양부모의 입양 경험과 입양가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공개입양하고 현재 초등학생 자녀를 둔 입양모들은 입양 후 부모로서의 행복뿐만 아니라 내적 성장, 친밀해진 부부애와 가족애, 양가 부모의 환대, 호의적인 사회적 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공개입양가족에 대해 문제적 관점보다는 입양가족의 행복이나 건강성을 홍보하며 입양가족의 건강성과 행복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학문적 연구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정부의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에서는 다양한 가족을 정책의 대상

으로 포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입양가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으나(배지연·이선형, 2021) 이것이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입양가족에 대한 연구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 연구를 포함해서 많은 연구들이 입양모의 경험에 치중해있으나 입양 부(父)를 대상으로 한 입양가족 경험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길 기대한다. 둘째, 입양 후 양육전담을 하는 양육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교육적 정보나 돌봄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입양사실 공개나 입양자녀의 사춘기 행동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유용한 부모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입양과 동시에 일을 하던 입양모가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을 고려할 때 입양한 엄마라는 특수한 상황보다도 자녀 양육을 맡은 여성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입양모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연령인 경우가 많고 자녀 중에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입양자녀를 키울 경우 양육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나 멘토링 서비스 제공은 양육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입양 후에 드러나는 입양자녀의 장애와 관련하여 장애 입양자녀를 위한 양육수당과 의료 및 심리치료비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아울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의 공무원 담당자들의 입양가족에 대한 이해와 지원내용의 업무과약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교현장에서 입양자녀들이 부당한 편견과 차별을 받지 않도록 초등학교 교사교육과 교과과정에 입양가족에 대한 이해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여전히 존재하는 입양이나 입양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나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한 입양 반편견교육이 일반 사회인이나 학부모, 초등학생들에게도 확대되어야 한다. 여섯째, 입양가족 자조모임 참여가 공개입양모에게는 큰 도움이 되므로 자발적인 자조모임이 형성, 유지될 수 있도록 현재 입양기관 뿐만 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은 지역의 가족 서비스 기관에서 입양가족 자조모임의 주선과 공간 제공, 그리고 입양가족을 위한 교육이나 상담 같은 서비스지원이 보다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 혹은 통합센터는 이용대상자들이 전문성, 다양성, 체계성을 강점으로 인식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므로(송혜림 외, 2019). 입양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입양가족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사업대상에 초등학생 자녀를 둔 공개입양부모를 포함시켜 입양부모에게 특화된 부모교육과 상담 그리고 입양자녀와 부모가 함께 하는 문화사업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면 입양가족의 건강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권지성·안재진(2005). 국내 공개입양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아동과권리*, 9(3), 393-412.
- 2) 권지성(2004). 공개입양가족의 적응과정에 대한 문화기술지. *한국아동복지학*, 17, 7-48.
- 3) 권지성·변미희·안재진·최운선(2016). 국내 입양부모의 입양 후 적응을 위한 사후서비스 이용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1(2), 345-366.
- 4) 권지성·변미희·안재진·최운선(2018). 입양부모의 입양 관련 활동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입양가족캠프, 자조모임,입양합창단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실천과연구*, 15(2), 57-81.
- 5) 권지성·정정호·김진숙(2018). 국내입양실무자들이 경험한 입양실무의 맥락과 패턴. *한국아동복지학*, 64, 174-203.
- 6) 김가득·유정숙(2010). 장애아동 입양어머니의 양육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입양 후 장애가 드러난 경우. *한국사회복지학*, 62(1), 83-107.
- 7) 김향은(2006). 입양가족의 적응과정에 관한 중단연구를 위한 기초연구-공개입양 가정의 입양현황과 자조집단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3(1), 61-80.
- 8) 남연희·김의남(2006). 공개입양부모의 공개입양만족도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아동복지연구*, 4(4), 123-139.
- 9) 류현(2009). 공개입양부모의 입양동기와 입양공개에 대한 태도가 자녀와의 입양관련대화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0) 박미정(2008). 공개입양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입양모의 양육행동과 입양모-자녀간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1) 박미정(2009). 국내 공개입양의 입양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입양모의 양육행동과 입양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0(3), 69-98.
- 12) 박미정(2013). 공개입양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입양모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10(2), 1-22.
- 13) 배윤진·김아름·송신영·권지성(2016).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II).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14) 배지연·이선형(2021). 입양가족의 시각에서 살펴본,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논문*.
- 15) 백경숙·변미희(2001). 공개입양부모를 위한 사전·사후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기초조사연구. *아동과 권리*, 5(2), 81-95.
- 16) 변미희·권지성·안재진·최운선(2015). 입양아동의 적응을 위한 입양부모의 대처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52, 105-138.
- 17) 보건복지부(2020a). 2019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 18) 보건복지부(2001, 2013, 2020b). *국내외입양현황*. 세종: 보건복지부.
- 19) 송혜림·윤소영·고선강·강은주(2019). 건강가정지원센터의 1인 가구 대상 프로그램 모형 개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3(2), 1-15.
- 20) 신정훈(2016). 입양에 관한 편견과 차별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입양모의 관점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1) 안재진(2008). 국내 입양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육아정책연구*, 2(1), 71-87.
- 22) 안재진·권지성·변미희·최운선(2010). 공개입양가족의 입양 관련 의사소통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1, 143-172.
- 23) 유영주(2004). 가족강화를 위한 한국형 가족건강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19-151.
- 24) 이지연·임춘희·김수정 공역(2016). *발달심리학*, Santrock, J. (2015), *Essentials of life-span development*, 4th ed., 경기 파주: 교육과학사.
- 25) 장창수·배지연(2016). 대전시 입양가족 실태조사 및 가족지원서비스 개발연구. 대전: 대전발전연구원.
- 26) 정영금·박정윤·송혜림(2011). 가정건강성 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1), 177-197.
- 27) 최운선·안재진·변미희·권지성(2019). 국내 입양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아동과권리*, 23(3), 553-578.
- 28)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조회(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
- 29) 현태옥(2004). 공개입양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체험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0) 박해준·이승연 공역(2009). 질적 연구방법으로서의 면담, Seidman, I. (2009), *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3rd ed., 서울: 학지사.
- 31) Barcons, N., Abrines, N., Brun, C., Sartini, C., Fumado, V. & Marre, D. (2012). Social relationships in children from intercountry adopt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4(5), 955-961.
- 32) Baran, A. & Pannor, R. (1993). Perspectives on open adoption. *Future of Children*, 3(1), 119-124.
- 33) Berry, M. (1993). Adoptive parents' perceptions of, and comfort with, open adoption. *Child Welfare*, 72(3), 231-253.
- 34) Brodzinsky, D. M, Smith, W. D. & Brodzinsky, B. A. (1998). *Children's Adjustment to Adoption: Developmental and Clinical Issues*, CA: SAGE Pub.
- 35) Chapman, C., Dorner, P., Silber, K. & Winterberg, T. S.

- (1987). Meeting the needs of the adoption triangle through open adoption: The adoptive parents.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4, 3-12.
- 36) Germain, C.(1979). *Social work practice: People and environments*.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37) Harper, J.(1984). Who am I? A crisis of identity for the adopted adolescent. *Mental Health in Australia*, 1(13), 16-18.
- 38) Markova, S. V. & Emelyanova, I. D.(2016). Personal maturity of adopting parents as a condition for preventing social orphanag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and Science Education*, 11(17), 10045-10055.
- 39) Nikolaeva, E. I. & Yapararova, O. G.(2007). Features of person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nd parents in the effective and ineffective host families. *Psychological Questions*, 6, 37-43.
- 40) Rusalov, V. M.(2006). Psychological maturity: single or multiple characteristic. *Psychological Journal*, 27(5), 84-86.

- 투 고 일 : 2021년 06월 15일
- 심 사 일 : 2021년 06월 30일
- 게재 확정 일 : 2021년 08월 02일